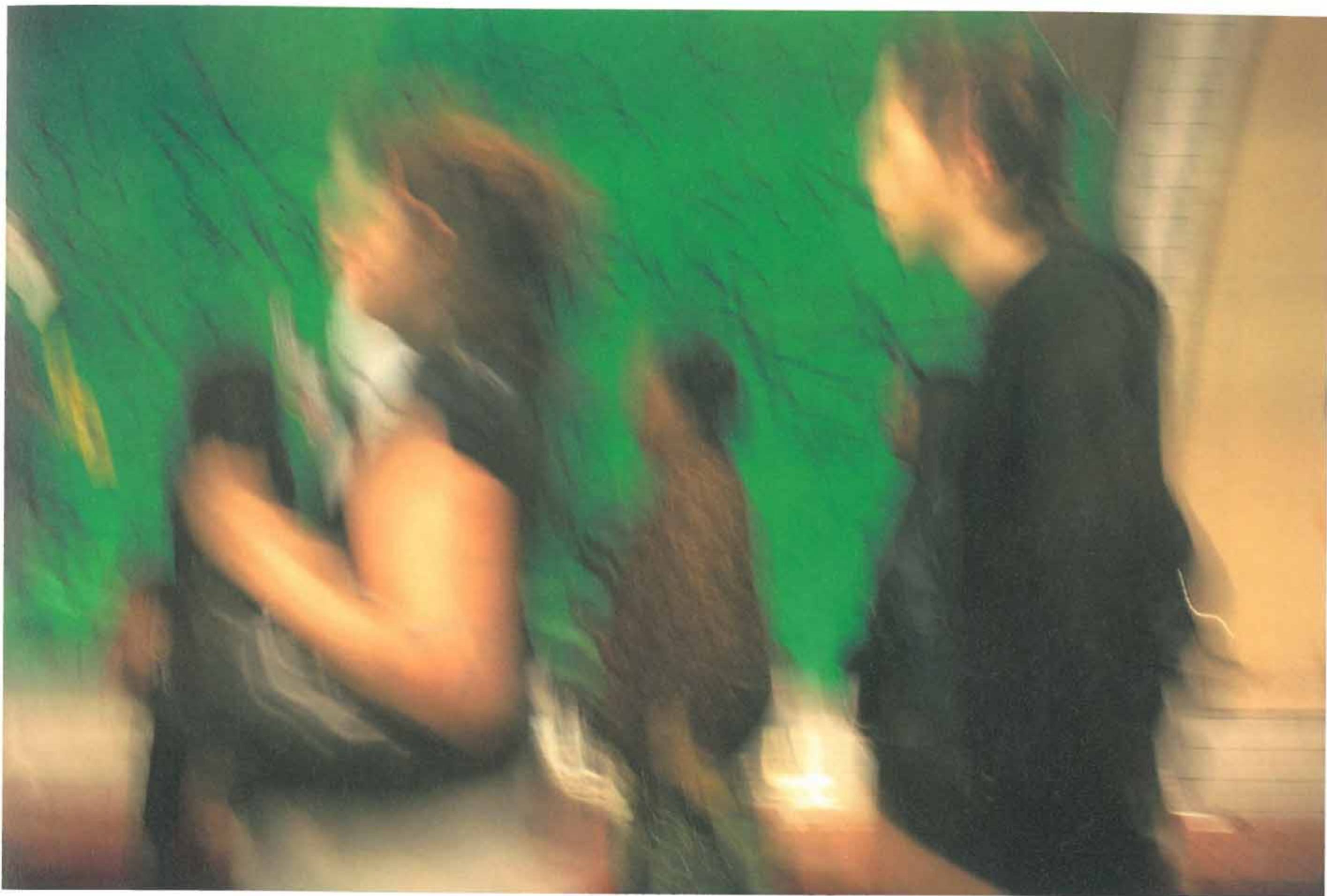


Koo Bohn chang

구본창

Korean photographer Koo Bohn-chang's *Vessel* series shows his unique restrained and delicate visual language. His solo exhibition 'Slow Talk' is now being held in Madrid, Spain until January 25, 2014.

미니멀한 '백자' 시리즈로 알려진 한국의 사진가 구본창은 사진 속에서 자신만의 절제되고 섬세한 언어를 보여준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이보리프레스에서는 현재 그의 개인전 'Slow Talk'가 열리고 있다.



A Moment of Travel

여행의 순간

In Paris, what has caught my interest is the diversity of people you can see in the subway. Encountering this multitude of individual styles that is much more varied than in Korea brings a new vitality into my life. This photograph, taken from inside a departing subway train, shows a group of people on their way out against the background of a large poster in a Parisian subway station. The flowing colors and movement made it a beautiful photograph, and the image of those people still remains in my heart.

다양한 전시와 행사로 항상 볼거리가 많은 파리. 그중에서도 나의 흥미를 끄는 일은 지하철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개성으로 살고 있는 이들과의 마주침은 삶의 활력을 다시 얻게 한다. 이 사진은 파리의 지하철역에 붙은 큰 포스터를 배경으로 지하철에 타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출발하는 지하철 안에서 촬영한 것이다. 흐르는 색감과 움직임이 아름다운 사진이 되었고, 그때 스쳤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다.